

# 우리나라의 평생교육 참여 실태 분석

## - 50세 이상 준고령자를 중심으로 -

장경호\*·이미정\*\*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준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가 점차 커지고 있으나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및 시설이 미비하고 그 활성화를 위한 연구도 미흡한 실정이다. 통계청(2000, 2004)에 따르면 15세 이상 가구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2004년 21.6%로 2000년 17.2%에 비해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OECD 평균 35.6%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경우 왜 노인의 교육 참여율이 저조한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50세 이상 준고령자를 대상으로 직업교육과 직업 외 교육 참여 실태를 파악하고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시간적·경제적 이유도 있겠지만 준고령자가 직업 또는 평생 교육 자체를 희망하지 않는 것에도 큰 이유가 있지 않겠냐는 것에 주목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준고령자의 저조한 교육 참여율을 두 단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저조한 참여율이 낮은 참여 희망률에 기인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문제의식에서 연령별로 교육참여 희망률을 파악하였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교육 희망자와 비희망자를 구분하여 연령별로 교육 참여율을 살펴보았다. 직업교육 참여율이 점차적으로 높아지는 추세인 것에 반해 직업교육 희망률은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1차년도에 비해 7차년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교육 희망률 또한 50대 이상 준고령자의 경우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세 이상의 직업교육 희망률은 직업교육 참여율만큼이나 낮았다. 한편, 직업교육 희망 여부에 따른 직업교육 참여율은 우선 직업훈련 희망자의 참여율이 비희망자에 비해 크게 높았고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다. 특히, 50대 이상의 준고령자 중 직업교육 희망자의 참여율이 같은 연령대 평균 참여율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령층의 직업교육 문제에 대한 접근이 왜 직업교육에 참여하지 않는가 보다는 왜 직업교육을 희망하지 않는가에 대한 시각으로 접근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 I . 서론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준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가 점차 커지고 있으나<sup>1)</sup>,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및 시설이 미비하고 그 활성화를 위한

-----  
\* 인하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 인하대학교 사회교육과 박사과정

1) UN의 인구유형 정의에 따르면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7%이상 14%미만인 사회를 ‘고령화 사회’, 14%이상 20%미만인 사회를 ‘고령사회’, 20%이상인 사회를 ‘초고령 사회’라고 한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2005년 기준으로 고령인구 비율이 9.1%인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에 속한다. 이러한 고령화 추세는 점점 심화되어 2026년에는 고령 인구의 비율이 20% 이상을 점유하여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통계청, 2005).

연구도 미흡한 실정이다. 통계청(2000, 2004)에 따르면 15세 이상 가구원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2004년 21.6%로 2000년 17.2%에 비해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OECD 평균 35.6%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2005)에 나타난 평생학습 참여율도 23.6%로 통계청의 조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 문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참여율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홍기형·나향진, 2002), 평생교육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져 평생교육 자체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평생교육에 한 번도 참여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 70%에 이른다는(한국교육개발원, 1999) 점이다.

기존의 연구는 평생학습 참여의 장애 요인에 초점을 맞춰 시간적인 문제와 금전적인 문제해결을 참여율 제고의 우선적인 과제로 들고 있다(Merriam and Caffarella, 1998). 우리나라의 경우도 장애요인으로는 ‘시간부족’과 ‘등록금, 수강료 등의 경제적 부담’과 ‘교육에 대한 안내와 정보부족’이 가장 많았다(한국교육개발원, 1999, 2005).<sup>2)</sup> Merriam and Caffarella(1998)에 따르면 ‘왜 평생교육에 참여하는가’ 보다는 ‘왜 평생교육에 참여하지 않는가’에 대한 분석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우리의 연구는 우리나라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다른 국가에 비해 왜 낮을까하는 문제에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하려 한다. 즉, 50대 이상의 준고령층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그들의 평생교육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점에서 시간적·금전적인 문제보다는 ‘배우기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인식적 장애요인(이경희, 2004) 또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미비(홍기형·나향진, 2002) 등에 따른 문제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노인의 특성에 관한 고찰이 필요하다. 고령인구의 성별 구성을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수명이 더 길어 남성에 비해 여성의 고령인구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로는 도시지역에 비해 농촌지역에서 고령화가 훨씬 빠르게 진행되어 농촌의 노인 비율이 도시에 비해 두 배를 넘어서고 있다. 하지만, 노인의 지위와 역할은 가정과 사회에서 점차 중요성을 잃고 있는 실정이다. 윤리적 측면에서는 핵가족화의 진전에 따라 과거 집안 어른으로서의 노인의 위상이 유명무실해지고 있고, 경제적 측면에서는 농업사회에서 공업 또는 서비스 산업으로의 변화 속에서 조기 퇴직과 일자리 부족의 문제로 노인의 직업 기회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측면에서도 기술·정보화 사회의 진전과 함께 노인의 경험과 지식은 점차 그 중요성을 상실해가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일정 정도 기인한다. 물론,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생산력 상실, 건강의 쇠퇴, 기억력 감소 등 여러 가지 장애 요인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노인의 능력은 사회적으로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인들이 신체적으로 약하고 의존적이며, 현대의 급변하는 사회를 살아가기에는 지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지도 모르지만 이러한 편견은 노인들과의 충분치 못한 접촉과 지식부족으로 인해 기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준상(2002)은 노인의 직업능력, 의식소통능력, 그리고 학습능력에 대한 과소평가를 노인에 대한 대표적인 사회적 편견으로 보았고, 한정란(2000, 2001)은 이러한 편견을 없애기 위해 노인에 대한 교육만이 아니라 노인에 의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경희(2004)는 사회의 부정적인 고정관

---

2) 이옥분 외(2001)의 연구에서는 학습비가 부담되더라도 학습기회가 제공되면 참여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 다소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년과 달리 노인은 비교적 높은 학습욕구뿐만 아니라 학습능력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주장하였다.

우리나라에 비해 일본, 영국, 미국의 노인교육은 상대적으로 활발한 것으로 여겨진다. 우선, 일본의 경우 노인교육은 주로 노인대학과 노인대학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노인대학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교양수준의 과정을 이수하면 학위를 부여한다. 특징적인 것은 노인대학을 수료한 경우 노인대학의 심화과정이라 할 수 있는 노인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교육내용도 우리나라에 비해 다양한 편인데, 우리나라 노인대학이 오락 및 친목 등의 내용에 대해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반면, 일본은 건강, 역할, 교양, 오락, 친교, 시사, 사회참여 의식의 교양 등의 많은 주제를 다루고 있다(한규량, 1998). 다음으로, 영국의 노인교육은 대학개방 프로그램을 통해서 활성화되고 있다(Schuller & Bostyn, 1996). 일반적으로는 취미, 건강, 여행 등의 교양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고등교육 기관에서 전문적인 직업훈련 (재)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박영애, 2002). 마지막으로 미국의 경우에는 300여개의 대학 내에 은퇴자 학습기구(Institutes for learning in Retirement)와 엘더호스텔(Elderhostel)제도를 설치하여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박영애, 2002).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노인교육 프로그램과 시설은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현대사회에서의 노인의 역할이 축소되었다고 여겨지고 있다는 점도 그 이유 중 하나이다. 하지만 Hughes and Graham(1990)이 지적했듯이 성인은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변화하고 발달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되어 온 삶에 대한 노인의 풍부한 경험과 연륜이 사회적 안정장치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노인의 역할은 더욱 중요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들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매우 낮은 형편이다. 그렇다면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노인들은 평생교육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을까? 우선, 노인교육의 문제점으로는 미시적으로 ‘노인교육시설이나 프로그램 다양성 부족’과 ‘경제적 어려움’을 들 수 있고(박석돈, 1998), 거시적으로 ‘사회에서 노령자에 대한 학습의 중대성을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박성희, 2004). 그 해결책으로서 정부의 주도하에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 확대와 함께 학습자 요구가 반영된 질 좋은 프로그램의 개발·운영되고(한국교육개발원, 1999) 특히 학습욕구가 상당히 높은 노인들을 위해 개별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sup>3)</sup>이 개발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다(이경희, 2004). 다음으로, 노인의 평생교육 참여 동기를 살펴보면, 배움의 즐거움(박석돈, 1998), 새로운 지식(이경희, 2004), 건강(홍기형·나향진, 2002), 자기개발(한국교육개발원, 1999; 이옥분 외, 2001), 심리적 만족감(기영화, 2005) 등을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이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으로는 외국어와 컴퓨터(이경희, 2004) 등 실무위주의 직업교육이 가장 많은 반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은 취미생활, 건강, 사회봉사 등의 순위로 나타났다(정영진, 2001).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기존 연구들은 노인이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학습 욕구가 강하다는 점을 들어 노인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와 인식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고, 평생교육 참여의 장애

---

3) ‘컴퓨터능력 인증서’, ‘자원봉사자 수료증’ 등의 자격증을 획득하고자 하는 노인들을 위한 자격증 준비반의 활성화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요인으로는 시간 부족과 경제적 이유를 들고 있다. 특히 평생교육 참여 동기중의 하나인 심리적 만족감은 Houle(1984)이 밝힌 참여 동기 유형 중 ‘학습지향적 유형’과 유사한 개념으로서 노인들이 배움에 대한 즐거움을 만끽하기 위해 학습에 대한 강한 욕구를 지니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앞서 제기되었던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과연 우리나라의 경우 왜 노인의 교육 참여율이 저조한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50세 이상 준고령자를 대상으로 직업교육과 직업 외 교육(이하 평생교육) 참여 실태를 파악하고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시간적·경제적 이유도 있겠지만, 준고령자가 직업 또는 평생 교육 자체를 희망하지 않는 것에도 큰 이유가 있지 않겠냐는 것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하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우선 준고령자의 특성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개인별 특성에 따른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 참여율을 파악한 후, 마지막으로 이를 연령별로 분석한다. 제3장에서는 결론을 도출한다.

## II. 실증분석

### 1. 자료 및 분석 대상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이 1998년 이후 매년 1회씩 조사하는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이하 KLIPS)이다. KLIPS 자료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의 5,000가구와 가구원을 대상으로 한 국내 유일의 노동관련 패널조사로서 매년 동일한 가구와 가구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6차 조사(2003년)와 7차 조사(2004년)를 대상으로 하여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1년간의 직업훈련 및 직업훈련 이외의 교육 참여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 분석은 6차 조사 당시의 기존 구성원과 신규구성원을 모두 포함한 11,54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sup>4)</sup>

먼저 6차 조사에서 나타난 직업훈련 경험 및 직업훈련 이외의 교육 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1년간 직업훈련을 받은 사람은 511명, 받고 있는 사람은 67명으로 전체의 5.0%를 차지한 반면, 직업훈련 이외의 교육을 받은 사람은 255명, 받고 있는 사람은 134명으로 전체의 3.4%를 차지하였다. 복수응답의 경우를 제외하여 직업훈련 또는 직업훈련 이외의 교육에 대한 경험이 있거나 받고 있는 사람은 904명으로 전체의 7.8%를 차지하였다. 이를 평생교육의 형태로 간주하여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보고서에서 나타난 연간 평생학습참여율과 비교하면 통계청의 21.6%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 조사에서와 같이 재학생 및 재수생을 제외했을 경우에도 평생교육 훈련경험과 직업훈련의 경험비율은 높아지나 직업훈련 이외의 교육 경험비율은 낮아져 전체의 7.7%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은 이 분석의 한계로 남게 되었지만, 이후의 분석

4) 6차와 7차조사를 이용하여 분석한 경우에는 6차조사의 가중치를 사용하였으며, 1차조사에서부터 7차조사까지의 자료를 모두 분석한 일부의 경우에는 가중치를 사용하지 않았다.

에서와 같이 교육훈련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개인의 특성별 분석은 그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문제의식에 일정한 시사점을 준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보인다.<sup>5)</sup>

## 2. 준고령자의 특성

학력의 연령별 특성을 <표 1>에서 살펴보면, 50대의 경우 중졸 이하가 52.9%, 중졸 이상 고졸 이하는 31.3%로 전체의 84.2%가 고졸 이하인 반면, 60대 이상의 경우에는 중졸 이하가 76.3%, 중졸 이상 고졸 이하는 14.1%로 전체의 90.4%가 고졸 이하로 나타나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로는 50대의 경우 88.2%가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고 7.5%가 사별한 반면, 60대 이상의 경우에는 각각 66.0%와 31.4%로 사별의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표 2> 참조). 성별로는 60대 이상의 경우 여성의 비중이 54.1%로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표 1> 학력의 연령별 특성

			학력					계
			중졸이하	고졸이하	전문대졸이하	대졸이하	대학원이상	
만나이	15-19세	만나이 %	14.5%	66.3%	5.8%	13.4%		100.0%
		학력 %	1.2%	16.4%	4.8%	5.4%		8.9%
	20-29세	만나이%	1.2 %	25.3%	25.4%	44.5%	3.6%	100.0%
		학력%	0.9%	14.3%	48.3%	40.9%	26.9%	20.4%
	30-39세	만나이%	6.5%	46.0%	14.5%	28.6%	4.4%	100.0%
		학력%	5.0%	27.1%	28.7%	27.4%	33.7%	21.3%
	40-49세	만나이%	30.0%	43.9%	7.9%	14.5%	3.7%	100.0%
		학력%	22.0%	25.0%	15.1%	13.4%	27.4%	20.6%
	50-59세	만나이%	52.9%	31.3%	1.7%	12.2%	1.9%	100.0%
		학력%	23.7%	10.9%	2.0%	6.9%	8.7%	12.6%
	60세이상	만나이%	76.3%	14.1%	0.7%	8.3%	0.6%	100.0%
		학력%	43.8%	6.3%	1.1%	6.0%	3.3%	16.1%
계	만나이%	28.1%	36.2%	10.7%	22.2%	2.8%	100.0%	
	학력%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5) 이 연구에서는 기술적 분석에 그쳤으나 뒤에 논의되는 바와 같이 그 것만으로도 연구의 목적을 일정 정도 달성할 수 있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논문에서는 로짓모형을 통해 교육훈련 참여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여 교육훈련 참여도를 분석하여 KLIPS의 패널조사를 장점을 충분히 활용할 예정이다.

<표 2> 혼인상태의 연령별 특성

			혼인상태					계
			미혼	기혼 유배우자	별거중	이혼	사별	
만나이	15-19세	만나이 %	100.0%					100.0%
		혼인상태 %	28.0%					8.9%
	20-29세	만나이%	86.3%	13.4%	0.2%	0.1%		100.0%
		혼인상태 %	55.3%	4.6%	2.6%	3.0%		20.4%
	30-39세	만나이%	21.6%	76.1%	1.6%	0.4%	0.4%	100.0%
		혼인상태 %	14.5%	27.4%	18.6%	17.3%	1.2%	21.3%
	40-49세	만나이%	3.0%	89.9%	3.7%	0.8%	2.5%	100.0%
		혼인상태 %	1.9%	31.2%	42.6%	35.5%	7.9%	20.6%
	50-59세	만나이%	0.6%	88.2%	3.1%	0.6%	7.5%	100.0%
		혼인상태 %	0.2%	18.8%	21.8%	16.2%	14.3%	12.6%
	60세이상	만나이%	0.1%	66.0%	1.6%	0.8%	31.4%	100.0%
		혼인상태 %	0.0%	18.0%	14.5%	28.0%	76.7%	16.1%
	계	만나이%	31.9%	59.2%	1.8%	0.5%	6.6%	100.0%
		혼인상태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3> 성의 연령별 특성

			성별		계
			남성	여성	
만나이	15-19세	만나이 %	52.9%	47.0%	100.0%
		성별 %	9.4%	8.4%	8.9%
	20-29세	만나이%	46.7%	53.3%	100.0%
		성별 %	19.1%	21.8%	20.4%
	30-39세	만나이%	51.9%	48.1%	100.0%
		성별 %	22.1%	20.5%	21.3%
	40-49세	만나이%	52.7%	47.3%	100.0%
		성별 %	21.7%	19.5%	20.6%
	50-59세	만나이%	51.4%	48.6%	100.0%
		성별 %	12.9%	12.3%	12.6%
	60세이상	만나이%	45.9%	54.1%	100.0%
		성별 %	14.8%	17.5%	16.1%
	계	만나이%	50.1%	49.9%	100.0%
		성별 %	100.0%	100.0%	100.0%

거주지를 연령별로 <표 4>에서 살펴보면, 농촌지역의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60세 이상의 경우 서울특별시와 기타 광역시 이외의 거주지역 비중이 50.9%로 크게 높았다. 경제활동 상태별로는 40대에 비해 50대에 들어서면서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22.3%에서 34.4%로 증가하고 60대 이상에서는 71.6%로 크게 높아지고 있다(<표 5> 참조). 취업자별로는 40대에 비해 50대에는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60.6%에서 54.0%로 감소하고 60대 이상에서는 39.5%로 크게 낮아진 반면, 자영업자의 비중은 각각 18.5%, 26.0%, 39.9%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영업자의 비중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참조). 이 중 임금근로자는 50대에 비해 60대 이상의 경우 상용직의 비중이 71.9%에서

53.0%로 감소한 반면 임시직과 일용직은 각각 10.8%에서 16.2%로, 17.3%에서 30.9%로 증가하여 60대에 접어들면서 특히 일용직의 증가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표 7> 참조). 한편, 미취업자는 미취업 이유를 <표 8>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50대의 경우 31.6%가 건강 문제를 꼽았고 60대 이상의 경우에는 60.6%가 연로를 미취업의 이유로 들었다.

<표 4> 거주지의 연령별 특성

			거주지			계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	
만나이	15-19세	만나이 %	29.3%	29.3%	41.5%	100.0%
		거주지 %	10.4%	8.4%	8.4%	8.9%
	20-29세	만나이%	25.6%	34.0%	40.3%	100.0%
		거주지 %	20.9%	22.5%	18.8%	20.4%
	30-39세	만나이%	24.7%	29.5%	45.8%	100.0%
		거주지 %	21.0%	20.3%	22.2%	21.3%
	40-49세	만나이%	26.4%	31.0%	42.6%	100.0%
		거주지 %	21.6%	20.6%	20.0%	20.6%
	50-59세	만나이%	25.2%	33.1%	41.7%	100.0%
		거주지 %	12.7%	13.5%	12.0%	12.6%
	60세이상	만나이%	20.9%	28.2%	50.9%	100.0%
		거주지 %	13.5%	14.7%	18.7%	16.1%
계	만나이%	25.1%	31.0%	43.9%	100.0%	
	거주지 %	100.0%	100.0%	100.0%	100.0%	

<표 5> 경제활동 상태의 연령별 특성

			15세 이상 인구			계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만나이	15-19세	만나이 %	4.6%	1.2%	94.1%	100.0%
		15세 이상 인구 %	0.8%	4.4%	19.1%	8.9%
	20-29세	만나이%	51.5%	5.3%	43.2%	100.0%
		15세 이상 인구 %	19.6%	43.4%	20.1%	20.4%
	30-39세	만나이%	67.8%	2.9%	29.3%	100.0%
		15세 이상 인구 %	27.0%	25.5%	14.2%	21.3%
	40-49세	만나이%	75.6%	2.1%	22.3%	100.0%
		15세 이상 인구 %	29.0%	17.9%	10.4%	20.6%
	50-59세	만나이%	64.3%	1.3%	34.4%	100.0%
		15세 이상 인구 %	15.1%	6.6%	9.9%	12.6%
	60세이상	만나이%	28.1%	0.3%	71.6%	100.0%
		15세 이상 인구 %	8.5%	2.2%	26.3%	16.1%
계	만나이%	53.6%	2.5%	43.9%	100.0%	
	15세 이상 인구 %	100.0%	100.0%	100.0%	100.0%	

<표 6> 취업자의 연령별 특성

			취업자의 상세 분류				계
			임금근로자	고용주	자영업자	18시간이상 가족종사자	
만나이	15-19세	만나이 %	97.6%			2.4%	100.0%
		취업자 %	1.1%			0.3%	0.8%
	20-29세	만나이%	94.6%	1.5%	2.1%	1.8%	100.0%
		취업자 %	26.9%	3.6%	2.6%	5.2%	19.7%
	30-39세	만나이%	77.1%	7.5%	10.5%	4.9%	100.0%
		취업자 %	30.0%	25.5%	17.8%	19.1%	27.0%
	40-49세	만나이%	60.6%	11.9%	18.5%	9.1%	100.0%
		취업자 %	25.4%	43.2%	33.7%	38.2%	29.0%
	50-59세	만나이%	54.0%	11.1%	26.0%	8.9%	100.0%
		취업자 %	11.8%	21.0%	24.6%	19.5%	15.1%
	60세이상	만나이%	39.5%	6.2%	39.9%	14.3%	100.0%
		취업자 %	4.8%	6.6%	21.3%	17.7%	8.5%
	계	만나이%	69.2%	8.0%	15.9%	6.9%	100.0%
		취업자 %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7> 임금근로자의 연령별 특성

			임금근로자의 형태			계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만나이	15-19세	만나이 %	46.0%	47.8%	6.2%	100.0%
		임금근로자%	0.6%	5.0%	0.7%	1.1%
	20-29세	만나이%	83.6%	12.9%	3.5%	100.0%
		임금근로자%	28.3%	32.9%	9.5%	26.9%
	30-39세	만나이%	87.0%	7.7%	5.4%	100.0%
		임금근로자%	32.8%	21.8%	16.2%	30.0%
	40-49세	만나이%	76.4%	8.6%	15.0%	100.0%
		임금근로자%	24.4%	20.8%	38.2%	25.4%
	50-59세	만나이%	71.9%	10.8%	17.3%	100.0%
		임금근로자%	10.7%	12.1%	20.5%	11.8%
	60세이상	만나이%	53.0%	16.2%	30.9%	100.0%
		임금근로자%	3.2%	7.4%	15.0%	4.8%
	계	만나이%	79.5%	10.5%	10.0%	100.0%
		임금근로자%	100.0%	100.0%	100.0%	100.0%



<표 8> 미취업 이유의 연령별 특성

			미취업 이유							계		
			학업	육아	가사	퇴직	연로	건강	임시 휴직		기타	
만나이	15-19세	만나이 %	96.6%	0.5%				0.1%	0.5%	2.2%	100.0%	
		미취업이유%	61.8%	0.9%				0.2%	2.7%	7.5%	20.5%	
	20-29세	만나이%	59.4%	8.7%	3.9%			4.2%	8.3%	15.5%	100.0%	
		미취업이유%	36.4%	16.1%	5.9%			5.6%	39.9%	50.2%	19.6%	
	30-39세	만나이%	3.7%	51.7%	19.7%			9.9%	7.0%	7.9%	100.0%	
		미취업이유%	1.5%	63.7%	19.6%			8.9%	22.5%	17.1%	13.1%	
	40-49세	만나이%	0.7%	17.1%	47.1%		0.2%	21.1%	6.7%	7.2%	100.0%	
		미취업이유%	0.2%	15.8%	35.0%		0.1%	14.1%	16.1%	11.7%	9.8%	
	50-59세	만나이%	0.2%	2.2%	38.3%	3.6%	14.3%	31.6%	5.1%	4.7%	100.0%	
		미취업이유%	0.1%	2.0%	28.0%	23.3%	7.7%	20.8%	12.0%	7.5%	9.6%	
	60세이상	만나이%		0.6%	5.5%	4.1%	60.6%	26.8%	1.0%	1.3%	100.0%	
		미취업이유%		1.5%	11.5%	76.7%	92.3%	50.3%	6.8%	6.0%	27.4%	
	계	만나이%		32.0%	10.6%	13.2%	1.5%	18.0%	14.6%	4.1%	6.1%	100.0%
		미취업이유%		100.0%	1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3. 개인별 특성에 따른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 참여율

개인별 특성에 따른 직업교육 참여율을 <표 9>에서 살펴보면, 우선 남성이 여성에 비해 직업교육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1990년대에 들어 남성과 여성이 직업교육 참여율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졌다는 기존의 연구(Valentine,1997)와는 대비되는 결과로서 주목된다. 연령별 직업교육 참여율은 20대가 가장 높고 이후 점차적으로 줄어들다가 60대에 이르러 크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Kopka and Peng(1993)에서 나타난 직업교육 참여의 생애주기를 일부 반영하고 있다. 그들에 따르면 직업교육 참여율은 업무능력 향상 등의 이유로 40대 초반까지 점차적으로 높아지다가 이후 60대까지 급격히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피크가 되는 시점이 20대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학력별로는 대학원 이상의 참여율이 가장 높고 대졸이하가 그 뒤를 잇고 있어 학력이 높을수록 참여율이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별로는 서울특별시보다 광역시 또는 도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참여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 한편, 개인별 특성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율은 <표 10>에 나타나 있다. 우선, 평생교육 참여율은 직업교육 참여율에 비해 크게 낮다. 특히, 50대 이상의 고령자들의 직업교육 참여 동기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으나 그들을 위한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커짐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 참여율이 매우 미비하다는 점에서 평생교육에 대한 홍보와 그 시설 확충이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 성별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율은 직업교육의 경우와는 반대로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0대가 가장 높고 이후 60대까지 급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동패널에서 조사된 평생교육의 범주가 사설학원 등을 포함하고 있어 10대들의 높은 학원 수강률을 일부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50대의 참여율이 1%를 밑돌고 60

대 이상에서는 6차년도와 7차년도에 각각 0.24%, 0.42%로 크게 떨어져 고령층을 위한 평생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학력별로는 6차년도와 7차년도에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직업교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학력이 높을수록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개인별 특성에 따른 직업교육 참여율

		1차년도	2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성별	남성	9.52%	2.67%	6.96%	6.14%	6.69%	7.90%
	여성	7.68%	2.06%	4.24%	3.53%	4.05%	3.56%
만나이	15-19세	3.07%	2.31%	4.73%	4.00%	6.94%	7.06%
	20-29세	14.33%	4.48%	8.69%	7.56%	9.17%	8.81%
	30-39세	10.25%	2.93%	8.57%	7.04%	7.22%	7.58%
	40-49세	9.15%	2.08%	5.51%	4.92%	4.15%	5.38%
	50-59세	6.55%	0.80%	1.86%	1.69%	1.82%	1.98%
	60세이상	2.61%	0.32%	0.30%	0.39%	0.32%	0.25%
학력	중졸이하	4.16%	0.39%	1.27%	1.31%	1.36%	1.47%
	고졸이하	11.01%	2.70%	5.85%	5.01%	5.36%	5.73%
	전문대졸이하	10.70%	4.78%	11.61%	8.70%	9.01%	9.36%
	대졸 이하	9.95%	4.05%	11.48%	9.51%	11.60%	11.91%
	대학원이상	11.43%	7.96%	12.18%	14.97%	10.19%	12.08%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7.93%	2.44%	5.33%	4.06%	4.79%	5.16%
	광역시	8.36%	2.11%	5.68%	4.95%	5.49%	6.06%
	도	9.15%	2.46%	5.53%	5.02%	5.45%	5.55%

주: 1차년도는 과거 전체, 4차년도는 과거 2개년간, 나머지는 지난 조사기간 중임 (이하 동일).

<표 10> 개인별 특성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율

		6차년도	7차년도
성별	남성	2.61%	2.76%
	여성	3.33%	3.68%
만나이	15-19세	6.28%	7.38%
	20-29세	5.07%	5.11%
	30-39세	3.21%	3.30%
	40-49세	2.34%	2.90%
	50-59세	0.99%	0.69%
	60세 이상	0.24%	0.42%
학력	중졸이하	0.33%	0.56%
	고졸이하	2.80%	3.16%
	전문대졸 이하	4.22%	3.36%
	대졸이하	7.98%	8.88%
	대학원이상	10.83%	6.71%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3.04%	3.48%
	광역시	3.20%	3.47%
	도	2.80%	2.95%

직업교육 참여율이 점차적으로 높아지는 추세인 것에 반해 직업교육 희망률은 <표 11>에서와

같이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1차년도에 비해 7차년도에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교육 희망률은 성별로는 여성에 비해 남성이 높고 연령별로는 20대가 가장 높았다. 특히, 50세 이상의 직업교육 희망률은 직업교육 참여율만큼이나 낮아 고령층의 직업교육 문제에 대한 접근은 왜 직업교육에 참여하지 않는가 보다는 왜 직업교육을 희망하지 않는가에 대한 시각으로 접근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학력별로는 조사년도 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고학력자가 저학력자에 비해 높은 희망률을 보이고 있다. 한편, 개인별 특성에 따른 평생교육 희망률은 직업교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표 12> 참조). 특히, 직업교육 희망률과는 대조적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의 희망률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평생교육 희망률이 10대가 가장 높고 이후 40대까지 점차적으로 줄어들다가 50대 이후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대졸 이하 및 대학원 이상의 고학력자의 경우가 20%를 상회하는 희망률을 나타내 학력이 높을수록 평생교육 희망률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거주지역별로는 다른 범주에 비해 뚜렷한 패턴을 나타내지 않았다.

<표 11> 개인별 특성에 따른 직업교육 희망률

		1차년도	2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성별	남성	13.13%	11.40%	8.50%	7.85%	6.62%	7.29%
	여성	18.39%	13.11%	8.60%	7.95%	5.80%	5.45%
만나이	15-19세	14.19%	11.46%	9.66%	13.04%	8.59%	9.88%
	20-29세	25.57%	21.32%	16.03%	13.33%	11.87%	12.29%
	30-39세	23.55%	19.00%	12.36%	11.27%	8.94%	8.17%
	40-49세	13.47%	8.63%	6.14%	5.63%	3.94%	3.44%
	50-59세	5.85%	5.13%	2.38%	2.07%	0.91%	1.91%
	60세이상	1.57%	1.23%	0.60%	0.31%	0.08%	0.25%
학력	중졸이하	6.78%	4.55%	2.01%	1.87%	1.54%	1.40%
	고졸이하	19.01%	14.67%	10.12%	8.73%	6.89%	7.20%
	전문대졸이하	25.47%	20.75%	16.07%	14.66%	10.17%	12.13%
	대졸이하	21.29%	18.85%	16.37%	16.14%	12.47%	11.64%
	대학원이상	16.73%	17.91%	11.54%	17.01%	9.55%	10.07%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17.06%	11.71%	9.67%	7.22%	4.63%	5.25%
	광역시	15.12%	10.51%	8.20%	8.19%	6.53%	5.82%
	도	15.60%	13.97%	8.15%	8.08%	6.87%	7.31%

<표 12> 개인별 특성에 따른 평생교육 희망률

		6차년도	7차년도
성별	남성	8.56%	10.24%
	여성	10.25%	11.40%
만나이	15-19세	16.85%	21.50%
	20-29세	16.02%	18.27%
	30-39세	12.19%	12.55%
	40-49세	6.28%	7.32%
	50-59세	2.88%	3.51%
	60세이상	1.20%	1.52%
학력	중졸이하	2.24%	2.78%
	고졸이하	11.07%	12.36%
	전문대졸 이하	14.10%	17.40%
	대졸이하	18.51%	20.32%
	대학원이상	15.92%	21.48%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9.33%	10.83%
	광역시	8.56%	9.66%
	도	10.22%	11.73%

#### 4.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 참여율의 연령별 특성 - 6차년도를 중심으로

고령자의 교육참여 현황을 <표 13>을 통해 살펴보면, 우선 직업훈련의 경우 50대는 3.5%, 60대 이상은 0.6%의 참여율을 보였고, 평생교육의 경우 각각 2.1%와 0.4%의 참여율을 보여 전체적으로는 각각 5.3%와 1.0%의 참여율을 나타내 전체 평균 8.6%에 크게 못 미쳤다. 직업교육과 평생교육의 경우 모두 40대부터 참여율이 크게 떨어져 평균에 못 미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학력별로는 50대의 경우 직업교육 참여율은 대졸 이하와 전문대졸 이하가 각각 8.3%와 7.3%를, 평생교육 참여율은 전문대졸 이하와 대학원 이상이 각각 13.6%와 13.0%를 보여 다른 연령층과 같이 학력이 높을수록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패턴은 60대 이상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나타나 대졸 이하의 참여율이 가장 높았다(<표 14> 참조). 한편, 성별로는 50대의 경우 직업교육 참여율은 남성과 여성이 각각 4.9%와 1.9%를, 평생교육 참여율은 남성과 여성이 각각 2.3%와 1.9%를 보여 남성의 참여율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의 경우에도 비슷한 패턴을 보여 여성에 비해 남성의 참여율이 높았다(<표 15> 참조). 이는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와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50대 이상 준고령자의 직업교육 참여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보다 남성의 참여율이 높았다. 반면, 평생교육 참여율은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여성의 참여율이 높았으나 50대 이상 준고령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남성의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은 40대까지는 남성에 비해 평생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50대에 접어들면서 참여율이 급격히 떨어져 남성에 비해 소극적인 참여를 보였다. 이는 준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여성의 참여 동기 유발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표 13> 교육훈련 참여의 연령별 특성

		직업훈련 경험		평생교육훈련 경험		직업 또는 평생교육훈련 경험	
		경험없다	경험있다	경험없다	경험있다	경험없다	경험있다
만나이	15-19세	98.4%	1.6%	93.2%	6.8%	91.5%	8.5%
	20-29세	92.1%	7.9%	93.8%	6.2%	86.7%	13.3%
	30-39세	90.8%	9.2%	95.2%	4.8%	87.1%	12.9%
	40-49세	94.7%	5.3%	97.3%	2.7%	92.7%	7.3%
	50-59세	96.5%	3.5%	97.9%	2.1%	94.7%	5.3%
	60세이상	99.4%	0.6%	99.6%	0.4%	99.0%	1.0%
계		94.7%	5.3%	96.2%	3.8%	91.4%	8.6%

<표 14> 교육훈련 참여의 연령별 · 학력별 특성

만나이	학력	직업훈련 경험		평생교육훈련 경험		직업 또는 평생교육훈련경험	
		경험없다	경험있다	경험없다	경험있다	경험없다	경험있다
15-19세	중졸이하	100.0%	0.0%	95.3%	4.7%	95.3%	4.7%
	고졸이하	97.9%	2.1%	91.6%	8.4%	89.4%	10.6%
	전문대졸이하	96.1%	3.9%	97.8%	2.2%	93.9%	6.1%
	대졸이하	100.0%	0.0%	96.9%	3.1%	96.9%	3.1%
	대학원이상	0.0%	0.0%	0.0%	0.0%	0.0%	0.0%
	소계	98.4%	1.6%	93.2%	6.8%	91.5%	8.5%
20-29세	중졸이하	100.0%	0.0%	100.0%	0.0%	100.0%	0.0%
	고졸이하	92.5%	7.5%	97.1%	2.9%	90.6%	9.4%
	전문대졸이하	92.1%	7.9%	96.5%	3.5%	88.7%	11.3%
	대졸이하	91.5%	8.5%	90.0%	10.0%	82.5%	17.5%
	대학원이상	95.0%	5.0%	95.3%	4.7%	91.3%	8.7%
	소계	92.1%	7.9%	93.8%	6.2%	86.7%	13.3%
30-39세	중졸이하	96.4%	3.6%	98.7%	1.3%	95.8%	4.2%
	고졸이하	95.0%	5.0%	97.7%	2.3%	92.9%	7.1%
	전문대졸이하	89.6%	10.4%	94.9%	5.1%	85.8%	14.2%
	대졸이하	83.7%	16.3%	92.0%	8.0%	77.6%	22.4%
	대학원이상	88.1%	11.9%	86.4%	13.6%	78.4%	21.6%
	소계	90.8%	9.2%	95.2%	4.8%	87.1%	12.9%
40-49세	중졸이하	98.0%	2.0%	99.8%	0.2%	97.8%	2.2%
	고졸이하	95.2%	4.8%	98.3%	1.7%	93.8%	6.2%
	전문대졸이하	92.2%	7.8%	98.0%	2.0%	90.3%	9.7%
	대졸이하	90.8%	9.2%	90.9%	9.1%	83.7%	16.3%
	대학원이상	83.2%	16.8%	89.6%	10.4%	80.3%	19.7%
	소계	94.7%	5.3%	97.3%	2.7%	92.7%	7.3%
50-59세	중졸이하	98.4%	1.6%	99.4%	0.6%	97.8%	2.2%
	고졸이하	95.5%	4.5%	98.6%	1.4%	94.9%	5.1%
	전문대졸이하	92.7%	7.3%	86.4%	13.6%	79.1%	20.9%
	대졸이하	91.7%	8.3%	93.3%	6.7%	85.0%	15.0%
	대학원이상	96.1%	3.9%	87.0%	13.0%	83.1%	16.9%
	소계	96.5%	3.5%	97.9%	2.1%	94.7%	5.3%
60세 이상	중졸이하	99.7%	0.3%	99.8%	0.2%	99.6%	0.4%
	고졸이하	98.8%	1.2%	99.8%	0.2%	98.6%	1.4%
	전문대졸이하	100.0%	0.0%	100.0%	0.0%	100.0%	0.0%
	대졸이하	97.0%	3.0%	97.2%	2.8%	94.1%	5.9%
	대학원이상	100.0%	0.0%	100.0%	0.0%	100.0%	0.0%
	소계	99.4%	0.6%	99.6%	0.4%	99.0%	1.0%

<표 15> 교육훈련 참여의 연령별 · 성별 특성

만나이	성	직업훈련 경험		평생교육훈련 경험		직업 또는 평생교육훈련 경험	
		경험없다	경험있다	경험없다	경험있다	경험없다	경험있다
15-19세	남성	98.8%	1.2%	94.2%	5.8%	93.0%	7.0%
	여성	97.9%	2.1%	92.0%	8.0%	89.9%	10.1%
	소계	98.4%	1.6%	93.2%	6.8%	91.5%	8.5%
20-29세	남성	93.3%	6.7%	94.6%	5.4%	88.6%	11.4%
	여성	91.1%	8.9%	93.0%	7.0%	85.0%	15.0%
	소계	92.1%	7.9%	93.8%	6.2%	86.7%	13.3%
30-39세	남성	89.0%	11.0%	96.0%	4.0%	86.3%	13.7%
	여성	92.7%	7.3%	94.4%	5.6%	87.9%	12.1%
	소계	90.8%	9.2%	95.2%	4.8%	87.1%	12.9%
40-49세	남성	92.8%	7.2%	97.7%	2.3%	91.6%	8.4%
	여성	96.8%	3.2%	96.9%	3.1%	94.0%	6.0%
	소계	94.7%	5.3%	97.3%	2.7%	92.7%	7.3%
50-59세	남성	95.1%	4.9%	97.7%	2.3%	93.0%	7.0%
	여성	98.1%	1.9%	98.1%	1.9%	96.5%	3.5%
	소계	96.5%	3.5%	97.9%	2.1%	94.7%	5.3%
60세 이상	남성	98.6%	1.4%	99.5%	0.5%	98.2%	1.8%
	여성	100.0%	0.0%	99.7%	0.3%	99.7%	0.3%
	소계	99.4%	0.6%	99.6%	0.4%	99.0%	1.0%

경제활동 상태에 따른 교육 참여율을 <표 16>를 통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 이상 준고령자의 직업교육 참여율은 취업자가 상대적으로 높고, 평생교육 참여율은 실업자와 비경제활동 인구의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다른 연령층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취업자의 경우에는 50대가 다른 연령층과 마찬가지로 임금근로자의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 참여율이 단연 높은 반면, 60대 이상은 고용주와 자영업자의 직업교육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표 17> 참조). 이 중 임금근로자 상용직의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 참여율이 임시직과 일용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50대 이상의 준고령자와 다른 연령층이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18> 참조). 반면, 미취업자의 경우에는 <표 19>에 나타난 바와 같이 미취업 이유에 따른 교육 참여율이 50대 이상의 준고령자와 그 외의 연령층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50대의 경우에는 퇴직자의 직업훈련 참여율이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 다른 연령층에서는 학업 등의 이유로 취업하지 않은 사람들의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50대의 경우 조기 퇴직에 따라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직업교육 참여율이 17.3%로 매우 높고 평생교육 참여율 또한 6.4%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설 확충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16> 교육훈련 참여의 연령별 · 경제활동 상태별 특성

만나이	경제활동 상태	직업훈련 경험		평생교육훈련 경험		직업 또는 평생교육훈련 경험	
		경험없다	경험있다	경험없다	경험있다	경험없다	경험있다
15-19세	취업자	93.2%	6.8%	97.1%	2.9%	90.3%	9.7%
	실업자	93.4%	6.6%	93.3%	6.7%	86.7%	13.3%
	비경제활동인구	98.7%	1.3%	93.0%	7.0%	91.7%	8.3%
	소계	98.4%	1.6%	93.2%	6.8%	91.5%	8.5%
20-29세	취업자	89.3%	10.7%	95.0%	5.0%	85.5%	14.5%
	실업자	91.9%	8.1%	94.1%	5.9%	86.8%	13.2%
	비경제활동인구	95.5%	4.5%	92.2%	7.8%	88.1%	11.9%
	소계	92.1%	7.9%	93.8%	6.2%	86.7%	13.3%
30-39세	취업자	88.1%	11.9%	95.6%	4.4%	85.1%	14.9%
	실업자	96.7%	3.3%	94.5%	5.5%	91.3%	8.7%
	비경제활동인구	96.3%	3.7%	94.5%	5.5%	91.3%	8.7%
	소계	90.8%	9.2%	95.2%	4.8%	87.1%	12.9%
40-49세	취업자	93.5%	6.5%	98.1%	1.9%	92.4%	7.6%
	실업자	97.5%	2.5%	97.7%	2.3%	95.2%	4.8%
	비경제활동인구	98.4%	1.6%	94.7%	5.3%	93.6%	6.4%
	소계	94.7%	5.3%	97.3%	2.7%	92.7%	7.3%
50-59세	취업자	95.4%	4.6%	98.0%	2.0%	93.7%	6.3%
	실업자	95.9%	4.1%	95.9%	4.1%	95.9%	4.1%
	비경제활동인구	98.7%	1.3%	97.9%	2.1%	96.6%	3.4%
	소계	96.5%	3.5%	97.9%	2.1%	94.7%	5.3%
60세이상	취업자	98.0%	2.0%	99.8%	0.2%	97.9%	2.1%
	실업자	100.0%	0.0%	100.0%	0.0%	100.0%	0.0%
	비경제활동인구	99.9%	0.1%	99.5%	0.5%	99.4%	0.6%
	소계	99.4%	0.6%	99.6%	0.4%	99.0%	1.0%



<표 17> 교육훈련 참여의 연령별 · 취업자 형태별 특성

만나이	취업자	직업훈련 경험		평생교육훈련 경험		직업 또는 평생교육훈련 경험	
		경험없다	경험있다	경험없다	경험있다	경험없다	경험있다
15-19세	임금근로자	95.5%	4.5%	97.0%	3.0%	92.5%	7.5%
	고용주	0.0%	0.0%	0.0%	0.0%	0.0%	0.0%
	자영업자	0.0%	0.0%	0.0%	0.0%	0.0%	0.0%
	가족종사자	0.0%	100.0%	100.0%	0.0%	0.0%	100.0%
	소계	93.2%	6.8%	97.1%	2.9%	90.3%	9.7%
20-29세	임금근로자	88.9%	11.1%	94.9%	5.1%	85.0%	15.0%
	고용주	100.0%	0.0%	100.0%	0.0%	100.0%	0.0%
	자영업자	100.0%	0.0%	96.6%	3.4%	96.6%	3.4%
	가족종사자	89.2%	10.8%	95.1%	4.9%	84.3%	15.7%
	소계	89.3%	10.7%	95.0%	5.0%	85.5%	14.5%
30-39세	임금근로자	86.4%	13.6%	94.8%	5.2%	82.9%	17.1%
	고용주	88.1%	11.9%	98.8%	1.2%	86.9%	13.1%
	자영업자	95.8%	4.2%	97.9%	2.1%	93.8%	6.2%
	가족종사자	98.5%	1.5%	98.0%	2.0%	96.4%	3.6%
	소계	88.1%	11.9%	95.6%	4.4%	85.0%	15.0%
40-49세	임금근로자	92.0%	8.0%	97.7%	2.3%	90.8%	9.2%
	고용주	97.5%	2.5%	98.7%	1.3%	96.2%	3.8%
	자영업자	93.6%	6.4%	98.4%	1.6%	92.3%	7.7%
	가족종사자	98.9%	1.1%	99.5%	0.5%	98.4%	1.6%
	소계	93.6%	6.4%	98.1%	1.9%	92.4%	7.6%
50-59세	임금근로자	93.6%	6.4%	96.8%	3.2%	91.0%	9.0%
	고용주	95.3%	4.7%	98.9%	1.1%	94.2%	5.8%
	자영업자	97.9%	2.1%	99.3%	0.7%	97.2%	2.8%
	가족종사자	99.1%	0.9%	100.0%	0.0%	99.1%	0.9%
	소계	95.4%	4.6%	98.0%	2.0%	93.7%	6.3%
60세 이상	임금근로자	98.0%	2.0%	100.0%	0.0%	98.0%	2.0%
	고용주	97.2%	2.8%	100.0%	0.0%	97.2%	2.8%
	자영업자	97.5%	2.5%	100.0%	0.0%	97.5%	2.5%
	가족종사자	100.0%	0.0%	98.9%	1.1%	98.9%	1.1%
	소계	98.0%	2.0%	99.8%	0.2%	97.9%	2.1%

<표 18> 교육훈련 참여의 연령별 · 임금근로자 형태별 특성

만나이	임금근로자 형태	직업훈련 경험		평생교육훈련 경험		직업 또는 평생교육훈련 경험	
		경험없다	경험있다	경험없다	경험있다	경험없다	경험있다
15-19세	상용직	90.2%	9.8%	93.6%	6.4%	83.7%	16.3%
	임시직	100.0%	0.0%	100.0%	0.0%	100.0%	0.0%
	일용직	100.0%	0.0%	100.0%	0.0%	100.0%	0.0%
	소계	95.5%	4.5%	97.0%	3.0%	92.5%	7.5%
20-29세	상용직	87.9%	12.1%	95.6%	4.4%	84.8%	15.2%
	임시직	93.4%	6.6%	88.9%	11.1%	82.9%	17.1%
	일용직	96.6%	3.4%	100.0%	0.0%	96.6%	3.4%
	소계	88.9%	11.1%	94.9%	5.1%	85.0%	15.0%
30-39세	상용직	84.7%	15.3%	94.2%	5.8%	81.0%	19.0%
	임시직	96.2%	3.8%	98.7%	1.3%	94.9%	5.1%
	일용직	98.9%	1.1%	98.2%	1.8%	97.2%	2.8%
	소계	86.4%	13.6%	94.8%	5.2%	82.9%	17.1%
40-49세	상용직	90.2%	9.8%	96.9%	3.1%	88.6%	11.4%
	임시직	97.7%	2.3%	100.0%	0.0%	97.7%	2.3%
	일용직	98.1%	1.9%	100.0%	0.0%	98.1%	1.9%
	소계	92.0%	8.0%	97.7%	2.3%	90.8%	9.2%
50-59세	상용직	91.7%	8.3%	96.0%	4.0%	88.3%	11.7%
	임시직	95.5%	4.5%	97.1%	2.9%	94.2%	5.8%
	일용직	100.0%	0.0%	100.0%	0.0%	100.0%	0.0%
	소계	93.6%	6.4%	96.8%	3.2%	91.0%	9.0%
60세 이상	상용직	97.0%	3.0%	100.0%	0.0%	97.0%	3.0%
	임시직	97.2%	2.8%	100.0%	0.0%	97.2%	2.8%
	일용직	100.0%	0.0%	100.0%	0.0%	100.0%	0.0%
	소계	98.0%	2.0%	100.0%	0.0%	98.0%	2.0%

<표 19> 교육훈련 참여의 연령별 · 미취업 이유별 특성

만나이	미취업이유	직업훈련 경험		평생교육훈련 경험		직업 또는 평생교육훈련 경험	
		경험없다	경험있다	경험없다	경험있다	경험없다	경험있다
15-19세	학업	99.1%	0.9%	93.2%	6.8%	92.3%	7.7%
	육아	100.0%	0.0%	100.0%	0.0%	100.0%	0.0%
	가사	0.0%	0.0%	0.0%	0.0%	0.0%	0.0%
	퇴직	0.0%	0.0%	0.0%	0.0%	0.0%	0.0%
	연로	0.0%	0.0%	0.0%	0.0%	0.0%	0.0%
	건강	100.0%	0.0%	100.0%	0.0%	100.0%	0.0%
	임시휴직	100.0%	0.0%	100.0%	0.0%	100.0%	0.0%
	기타	84.2%	15.8%	81.3%	18.7%	65.5%	34.5%
	소계	98.8%	1.2%	93.0%	7.0%	91.8%	8.2%
20-29세	학업	96.5%	3.5%	89.5%	10.5%	86.2%	13.8%
	육아	98.6%	1.4%	100.0%	0.0%	98.6%	1.4%
	가사	100.0%	0.0%	100.0%	0.0%	100.0%	0.0%
	퇴직	0.0%	0.0%	0.0%	0.0%	0.0%	0.0%
	연로	0.0%	0.0%	0.0%	0.0%	0.0%	0.0%
	건강	100.0%	0.0%	100.0%	0.0%	100.0%	0.0%
	임시휴직	98.2%	1.8%	100.0%	0.0%	98.2%	1.8%
	기타	92.0%	8.0%	92.5%	7.5%	85.9%	14.1%
	소계	96.4%	3.6%	92.6%	7.4%	89.3%	10.7%
30-39세	학업	76.7%	23.3%	94.1%	5.9%	76.7%	23.3%
	육아	97.6%	2.4%	96.2%	3.8%	93.8%	6.2%
	가사	100.0%	0.0%	95.5%	4.5%	95.5%	4.5%
	퇴직	0.0%	0.0%	0.0%	0.0%	0.0%	0.0%
	연로	0.0%	0.0%	0.0%	0.0%	0.0%	0.0%
	건강	95.8%	4.2%	98.1%	1.9%	95.8%	4.2%
	임시휴직	94.8%	5.2%	92.3%	7.7%	87.1%	12.9%
	기타	93.5%	6.5%	83.0%	17.0%	76.5%	23.5%
	소계	96.6%	3.4%	94.8%	5.2%	91.8%	8.2%
40-49세	학업	61.1%	38.9%	61.1%	38.9%	61.1%	38.9%
	육아	97.6%	2.4%	90.9%	9.1%	90.0%	10.0%
	가사	100.0%	0.0%	93.0%	7.0%	93.0%	7.0%
	퇴직	0.0%	0.0%	0.0%	0.0%	0.0%	0.0%
	연로	100.0%	0.0%	100.0%	0.0%	100.0%	0.0%
	건강	100.0%	0.0%	98.6%	1.4%	98.6%	1.4%
	임시휴직	96.8%	3.2%	100.0%	0.0%	96.8%	3.2%
	기타	93.8%	6.2%	96.6%	3.4%	90.5%	9.5%
	소계	98.7%	1.3%	94.3%	5.7%	93.5%	6.5%
50-59세	학업	100.0%	0.0%	100.0%	0.0%	100.0%	0.0%
	육아	100.0%	0.0%	92.0%	8.0%	92.0%	8.0%
	가사	99.4%	0.6%	98.3%	1.7%	97.8%	2.2%
	퇴직	82.7%	17.3%	93.6%	6.4%	76.3%	23.7%
	연로	100.0%	0.0%	98.5%	1.5%	98.5%	1.5%
	건강	99.4%	0.6%	100.0%	0.0%	99.4%	0.6%
	임시휴직	95.6%	4.4%	100.0%	0.0%	95.6%	4.4%
	기타	95.5%	4.5%	100.0%	0.0%	95.5%	4.5%
	소계	98.5%	1.5%	98.7%	1.3%	97.3%	2.7%
60세 이상	학업	0.0%	0.0%	0.0%	0.0%	0.0%	0.0%
	육아	100.0%	0.0%	91.9%	8.1%	91.9%	8.1%
	가사	100.0%	0.0%	98.8%	1.2%	98.8%	1.2%
	퇴직	100.0%	0.0%	99.0%	1.0%	99.0%	1.0%
	연로	100.0%	0.0%	99.8%	0.2%	99.8%	0.2%
	건강	100.0%	0.0%	99.1%	0.9%	99.1%	0.9%
	임시휴직	100.0%	0.0%	100.0%	0.0%	100.0%	0.0%
	기타	100.0%	0.0%	100.0%	0.0%	100.0%	0.0%
	소계	100.0%	0.0%	99.5%	0.5%	99.5%	0.5%

직업에 따른 교육 참여율을 <표 20>를 통해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 이상의 준고령자의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 참여율은 전문관리직과 사무직이 다른 직업에 비해 높아 다른 연령층과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 특히, 직업교육 참여율은 50대의 경우 전문관리직이 13.9%, 60대 이상의 경우 사무직이 15.7%로 준고령자의 평균 참여율보다 훨씬 높은 점이 주목할 만하다. 기업형태별로는 정부기관 종사자의 직업교육 참여율이 50대에서는 13.6%, 60대 이상에서는 11.3%로 다른 기업형태에 비해 높고, 50대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법인단체, 정부기관, 공기업 순으로 상대적으로 높았다(<표 21> 참조). 한편, 종업원 수에 따른 직장 규모별로는 50대의 경우 다른 연령층과 마찬가지로 500인 이상 대기업 종사자들의 참여율이 19.2%로 가장 높았다(<표 22> 참조).

<표 20> 교육훈련 참여의 연령별·직업별 특성

만나이	기업형태	직업훈련 경험		평생교육훈련 경험		직업 또는 평생교육훈련 경험	
		경험없다	경험있다	경험없다	경험있다	경험없다	경험있다
15-19세	전문관리직	97.6%	2.4%	91.4%	8.6%	88.9%	11.1%
	사무직	100.0%	0.0%	98.8%	1.2%	98.8%	1.2%
	서비스판매직	98.5%	1.5%	94.2%	5.8%	92.7%	7.3%
	농림어업직	100.0%	0.0%	100.0%	0.0%	100.0%	0.0%
	생산직	98.3%	1.7%	93.3%	6.7%	91.6%	8.4%
	소계	98.6%	1.4%	94.4%	5.6%	93.0%	7.0%
15-19세	전문관리직	86.6%	13.4%	91.5%	8.5%	80.2%	19.8%
	사무직	90.6%	9.4%	95.2%	4.8%	87.1%	12.9%
	서비스판매직	90.6%	9.4%	97.3%	2.7%	88.0%	12.0%
	농림어업직	100.0%	0.0%	100.0%	0.0%	100.0%	0.0%
	생산직	91.4%	8.6%	99.4%	0.6%	90.7%	9.3%
	소계	89.3%	10.7%	95.1%	4.9%	85.5%	14.5%
15-19세	전문관리직	83.4%	16.6%	91.8%	8.2%	78.1%	21.9%
	사무직	84.5%	15.5%	95.6%	4.4%	81.3%	18.7%
	서비스판매직	91.3%	8.7%	96.6%	3.4%	88.4%	11.6%
	농림어업직	95.2%	4.8%	100.0%	0.0%	95.2%	4.8%
	생산직	92.3%	7.7%	98.5%	1.5%	91.4%	8.6%
	소계	88.1%	11.9%	95.6%	4.4%	85.1%	14.9%
15-19세	전문관리직	89.2%	10.8%	94.5%	5.5%	85.9%	14.1%
	사무직	89.7%	10.3%	94.7%	5.3%	85.8%	14.2%
	서비스판매직	95.8%	4.2%	99.7%	0.3%	95.5%	4.5%
	농림어업직	92.8%	7.2%	100.0%	0.0%	92.8%	7.2%
	생산직	95.0%	5.0%	99.4%	0.6%	94.9%	5.1%
	소계	93.5%	6.5%	98.1%	1.9%	92.3%	7.7%
15-19세	전문관리직	86.1%	13.9%	91.9%	8.1%	79.4%	20.6%
	사무직	96.4%	3.6%	96.2%	3.8%	92.7%	7.3%
	서비스판매직	98.3%	1.7%	99.6%	0.4%	98.3%	1.7%
	농림어업직	99.2%	0.8%	100.0%	0.0%	99.2%	0.8%
	생산직	96.5%	3.5%	99.1%	0.9%	95.5%	4.5%
	소계	95.4%	4.6%	98.0%	2.0%	93.7%	6.3%
15-19세	전문관리직	92.4%	7.6%	100.0%	0.0%	92.4%	7.6%
	사무직	84.3%	15.7%	100.0%	0.0%	84.3%	15.7%
	서비스판매직	100.0%	0.0%	100.0%	0.0%	100.0%	0.0%
	농림어업직	98.9%	1.1%	99.5%	0.5%	98.4%	1.6%
	생산직	97.7%	2.3%	100.0%	0.0%	97.7%	2.3%
	소계	98.0%	2.0%	99.8%	0.2%	97.9%	2.1%

<표 21> 교육훈련 참여의 연령별·기업형태별 특성

만나이	기업형태	직업훈련 경험		평생교육훈련 경험		직업 또는 평생교육훈련 경험	
		경험없다	경험있다	경험없다	경험있다	경험없다	경험있다
15-19세	민간회사	94.6%	5.4%	97.9%	2.0%	92.5%	7.5%
	외국인회사	0.0%	0.0%	0.0%	0.0%	0.0%	0.0%
	공기업	100.0%	0.0%	0.0%	100.0%	0.0%	100.0%
	법인단체	0.0%	0.0%	0.0%	0.0%	0.0%	0.0%
	정부기관	100.0%	0.0%	100.0%	0.0%	100.0%	0.0%
	비소속	100.0%	0.0%	100.0%	0.0%	100.0%	0.0%
	기타	0.0%	0.0%	0.0%	0.0%	0.0%	0.0%
	소계	95.5%	4.5%	97.0%	3.0%	92.5%	7.5%
20-29세	민간회사	90.8%	9.2%	96.2%	3.8%	87.3%	12.7%
	외국인회사	68.7%	31.3%	89.2%	10.8%	68.7%	31.3%
	공기업	86.1%	13.9%	94.5%	5.5%	86.1%	13.9%
	법인단체	86.0%	14.0%	82.5%	17.5%	73.9%	26.1%
	정부기관	66.0%	34.0%	87.4%	12.6%	58.7%	41.3%
	비소속	96.2%	3.85%	93.1%	6.9%	89.3%	10.7%
	기타	100.0%	0.0%	100.0%	0.0%	100.0%	0.0%
	소계	88.9%	11.1%	94.8%	5.2%	84.9%	15.1%
30-39세	민간회사	88.6%	11.4%	96.1%	3.9%	85.7%	14.3%
	외국인회사	67.6%	32.4%	81.1%	18.9%	58.9%	41.1%
	공기업	80.4%	19.6%	88.9%	11.1%	73.6%	26.4%
	법인단체	74.8%	25.2%	89.1%	10.9%	69.7%	30.3%
	정부기관	73.3%	26.7%	92.9%	7.1%	69.3%	30.7%
	비소속	100.0%	0.0%	89.7%	10.3%	89.7%	10.3%
	기타	100.0%	0.0%	100.0%	0.0%	100.0%	0.0%
	소계	86.4%	13.6%	94.8%	5.2%	82.9%	17.1%
40-49세	민간회사	94.5%	5.5%	99.5%	0.5%	94.3%	5.7%
	외국인회사	73.9%	26.1%	100.0%	0.0%	73.9%	26.1%
	공기업	90.3%	9.7%	88.9%	11.1%	80.7%	19.3%
	법인단체	79.9%	20.1%	100.0%	0.0%	79.9%	20.1%
	정부기관	74.8%	25.2%	87.7%	12.3%	70.9%	29.1%
	비소속	100.0%	0.0%	100.0%	0.0%	100.0%	0.0%
	기타	100.0%	0.0%	79.5%	20.5%	79.5%	20.5%
	소계	91.9%	8.1%	97.7%	2.3%	90.7%	9.3%
50-59세	민간회사	94.3%	5.7%	98.8%	1.2%	93.6%	6.4%
	외국인회사	0.0%	0.0%	0.0%	0.0%	0.0%	0.0%
	공기업	93.8%	6.2%	91.6%	8.4%	85.4%	14.6%
	법인단체	97.0%	3.0%	87.2%	12.8%	84.2%	15.8%
	정부기관	86.4%	13.6%	90.3%	9.7%	78.2%	21.8%
	비소속	100.0%	0.0%	100.0%	0.0%	100.0%	0.0%
	기타	100.0%	0.0%	100.0%	0.0%	100.0%	0.0%
	소계	93.8%	6.2%	96.8%	3.2%	91.2%	8.8%
60세이상	민간회사	98.4%	1.6%	100.0%	0.0%	98.4%	1.6%
	외국인회사	100.0%	0.0%	100.0%	0.0%	100.0%	0.0%
	공기업	100.0%	0.0%	100.0%	0.0%	100.0%	0.0%
	법인단체	100.0%	0.0%	100.0%	0.0%	100.0%	0.0%
	정부기관	88.7%	11.3%	100.0%	0.0%	88.7%	11.3%
	비소속	100.0%	0.0%	100.0%	0.0%	100.0%	0.0%
	기타	48.0%	52.0%	100.0%	0.0%	48.0%	52.0%
	소계	98.0%	2.0%	100.0%	0.0%	98.0%	2.0%

<표 22> 교육훈련 참여의 연령별·종업원 수별 특성

만나이	기업형태	직업훈련 경험		평생교육훈련 경험		직업 또는 평생교육훈련 경험	
		경험없다	경험있다	경험없다	경험있다	경험없다	경험있다
15-19세	10인미만	100.0%	0.0%	100.0%	0.0%	100.0%	0.0%
	10인이상 30인미만	100.0%	0.0%	74.7%	25.3%	74.7%	25.3%
	30인이상 100인미만	100.0%	0.0%	100.0%	0.0%	100.0%	0.0%
	100인이상 300인미만	100.0%	0.0%	100.0%	0.0%	100.0%	0.0%
	300인이상 500인미만	0.0%	100.0%	100.0%	0.0%	0.0%	100.0%
	500인이상	100.0%	0.0%	81.8%	18.2%	81.8%	18.2%
	소계	96.1%	3.9%	95.4%	4.6%	91.4%	8.6%
20-29세	10인미만	95.5%	4.5%	98.0%	2.0%	93.5%	6.5%
	10인이상 30인미만	95.4%	4.6%	95.1%	4.9%	90.5%	9.5%
	30인이상 100인미만	84.9%	15.1%	95.9%	4.1%	83.2%	16.8%
	100인이상 300인미만	86.5%	13.5%	93.0%	7.0%	81.7%	18.3%
	300인이상 500인미만	89.5%	10.5%	75.4%	24.6%	71.0%	29.0%
	500인이상	78.6%	21.4%	97.1%	2.9%	76.2%	23.8%
	소계	89.5%	10.5%	95.7%	4.3%	86.2%	13.8%
30-39세	10인미만	93.8%	6.2%	98.2%	1.8%	91.9%	8.1%
	10인이상 30인미만	94.9%	5.1%	99.1%	0.9%	94.5%	5.5%
	30인이상 100인미만	94.1%	5.9%	95.3%	4.7%	91.5%	8.5%
	100인이상 300인미만	87.8%	12.2%	97.7%	2.3%	86.3%	13.7%
	300인이상 500인미만	88.4%	11.6%	90.3%	9.7%	78.7%	21.3%
	500인이상	69.0%	31.0%	86.9%	13.1%	61.0%	39.0%
	소계	87.6%	12.4%	95.0%	5.0%	84.2%	15.8%
40-49세	10인미만	98.0%	2.0%	99.6%	0.4%	97.6%	2.4%
	10인이상 30인미만	95.4%	4.6%	99.0%	1.0%	94.4%	5.6%
	30인이상 100인미만	94.9%	5.1%	99.4%	0.6%	94.9%	5.1%
	100인이상 300인미만	92.9%	7.1%	97.2%	2.8%	90.0%	10.0%
	300인이상 500인미만	96.2%	3.8%	100.0%	0.0%	96.2%	3.8%
	500인이상	79.6%	20.4%	95.3%	4.7%	76.2%	23.8%
	소계	94.2%	5.8%	98.7%	1.3%	93.2%	6.8%
50-59세	10인미만	97.2%	2.8%	99.5%	0.5%	96.6%	3.4%
	10인이상 30인미만	98.5%	1.5%	100.0%	0.0%	98.5%	1.5%
	30인이상 100인미만	92.6%	7.4%	93.5%	6.5%	87.5%	12.5%
	100인이상 300인미만	90.6%	9.4%	95.1%	4.9%	85.7%	14.3%
	300인이상 500인미만	93.7%	6.3%	100.0%	0.0%	93.7%	6.3%
	500인이상	80.8%	19.2%	94.7%	5.3%	77.8%	22.2%
	소계	94.4%	5.6%	97.9%	2.1%	92.7%	7.3%
60세이상	10인미만	97.3%	2.7%	99.1%	0.9%	96.4%	3.6%
	10인이상 30인미만	97.3%	2.7%	100.0%	0.0%	97.3%	2.7%
	30인이상 100인미만	100.0%	0.0%	100.0%	0.0%	100.0%	0.0%
	100인이상 300인미만	100.0%	0.0%	100.0%	0.0%	100.0%	0.0%
	300인이상 500인미만	100.0%	0.0%	100.0%	0.0%	100.0%	0.0%
	500인이상	100.0%	0.0%	100.0%	0.0%	100.0%	0.0%
	소계	98.0%	2.0%	99.5%	0.5%	97.5%	2.5%

직업교육 목적별로는 10대를 제외하면 모두 업무능력 향상이 가장 주된 목적으로 나타났다. 반면(<표 23> 참조)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이유는 참여 목적과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표 24> 참조). 10대를 제외하고는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주된 이유가 업무능력 향상이라는 점에서 직업교육 참여의 목적과 유사하지만 그 비율은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이 주목된다. 특히 50대의 경우 직업교육 참여자의 74.8%가 업무능력 향상을 주된 이유로 꼽았으나 직업교육 희망자의 57.8%만이 업무능력 향상을 주된 이유로 들었다. 60대의 경우에는 이 격차가 더욱 벌어져 직업교육 참여자의 72.4%가 업무능력 향상을 참여 목적으로, 직업교육 희망자의 38.7%만이 업무능력 향상을 희망 이유로 들었다. 반면, 50대와 60대 이상의 각각 15.9%와 35.8%가 (재)취업을 직업교육 희망 이유로 들었으나, 실제 직업교육 참여 목적을 보면 각각 5.7%와 0%로 떨어져 50대 이상을 대상으로 (재)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교육 프로그램 및 시설이 매우 부족함을 말해주고 있다. 한편, 평생교육 희망 이유는 <표 25>에서와 같이 50대까지는 컴퓨터에 관련된 지식 습득이 주된 이유였으나, 60대에 접어들면서 문화, 교양 및 여가선용이 가장 주된 이유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0대의 경우 희망자의 44.4%가 문화, 교양 및 여가선용을 희망 이유로 들었고, 다음으로 30.5%와 15.2%가 각각 컴퓨터와 사회봉사를 희망 이유로 꼽았다. 특히, 60대의 경우 문화, 교양 및 여가선용뿐만 아니라 사회봉사에 대한 수요도 크게 증가하는 점이 주목된다.

<표 23> 직업훈련교육 참여 목적의 연령별 특성

		훈련목적					계
		창업	(재)취업	업무능력향상	자격증취득	기타	
만나이	15-19세		42.1%	12.4%	36.5%	8.9%	100.0%
	20-29세	2.7%	28.0%	58.9%	7.6%	2.8%	100.0%
	30-39세	4.7%	5.4%	79.5%	7.6%	2.8%	100.0%
	40-49세	3.0%	5.2%	84.0%	5.5%	2.3%	100.0%
	50-59세	1.4%	5.7%	74.8%	9.3%	8.9%	100.0%
	60세이상			72.4%	8.0%	19.6%	100.0%
	계	3.3%	13.1%	71.9%	8.1%	3.7%	100.0%

<표 24> 직업훈련교육 희망 이유의 연령별 특성

		직업훈련교육희망이유						계
		창업	(재)취업	업무능력향상	자격증취득	미래준비	기타	
만나이	15-19세	2.4%	34.1%	4.0%	36.3%	19.7%	3.4%	100.0%
	20-29세	2.0%	30.1%	35.5%	6.4%	24.1%	1.9%	100.0%
	30-39세	5.6%	18.3%	44.2%	1.8%	29.7%	0.4%	100.0%
	40-49세	13.8%	9.4%	46.4%	4.4%	24.3%	1.8%	100.0%
	50-59세	4.6%	15.9%	57.8%		21.7%		100.0%
	60세이상		35.8%	38.7%		14.5%	11.0%	100.0%
	계	5.7%	21.3%	40.0%	5.8%	25.8%	1.4%	100.0%



<표 25> 평생교육 희망 이유의 연령별 특성

		직업훈련이외 받고싶은 교육내용							계
		컴퓨터	어학	전통기능/ 문화	문화,교양, 여가선용	사회봉사	정규교육	기타	
만나이	15-19세	54.9%	32.0%		2.3%		7.2%	3.6%	100.0%
	20-29세	40.8%	42.3%	0.9%	7.8%	1.5%	3.0%	3.9%	100.0%
	30-39세	41.2%	21.5%	3.0%	16.1%	3.7%	4.8%	9.7%	100.0%
	40-49세	44.4%	13.7%	4.3%	20.8%	6.8%	2.2%	7.8%	100.0%
	50-59세	44.8%	16.1%	3.0%	19.9%	5.4%	3.2%	7.5%	100.0%
	60세이상	30.5%	4.3%	5.5%	44.4%	15.2%			100.0%
계		42.8%	27.45	2.3%	13.8%	3.6%	3.7%	6.5%	100.0%

마지막으로 직업교육 희망 여부에 따른 직업교육 참여율을 <표 26>를 통해 살펴보면 직업훈련 희망자의 참여율이 비희망자에 비해 크게 높음을 알 수 있다. 1차 조사에서 6차 조사에 걸쳐 지난 조사 기간 중 직업 교육을 희망했던 사람들의 교육 참여율이 5.4%, 12.0%, 17.1%, 19.3%, 22.1%로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을 뿐만 아니라 크게 증가하는 추세라는 것이 특징적이다. 50대 이상의 준고령자의 경우에도, 5차 조사 시점에서 직업교육을 희망했던 사람들 중 각각 16.7%와 14.3%가 6차 및 7차 조사 기간 중 직업교육에 참여하여 준고령자 평균에 비해 참여율이 크게 높은 것도 주목된다. 반면, 평생교육 희망 여부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율은 직업교육에 비해 희망자와 비희망자의 참여율 격차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표 27> 참조).

<표 26> 직업교육 희망 여부에 따른 직업교육 참여율

		직업훈련 희망자 참여율					직업훈련 비희망자 참여율				
		2차	4차	5차	6차	7차	2차	4차	5차	6차	7차
(전체)	1차	5.40%	9.80%	7.60%	8.50%	8.70%	1.80%	4.80%	4.20%	4.70%	5.00%
	2차		12.00%	9.40%	9.30%	10.30%		4.60%	4.10%	4.70%	4.90%
	4차			17.10%	13.90%	13.60%			3.60%	4.60%	4.90%
	5차				19.30%	17.40%				4.20%	4.70%
	6차					22.10%					4.60%
(50세이상)	1차	0%	2.00%	2.10%	5.00%	3.00%	0.60%	1.00%	1.00%	0.90%	1.10%
	2차		7.30%	1.30%	2.50%	2.60%		0.90%	1.10%	1.10%	1.10%
	4차			2.50%	2.80%	14.30%			1.00%	1.10%	1.00%
	5차				16.70%	14.30%				0.90%	1.00%
	6차					7.70%					1.10%

<표 27> 평생교육 희망 여부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율

		평생교육 희망자의 참여율		평생교육 비희망자의 참여율	
		6차	7차	6차	7차
(전체)	6차		4.6%		2.7%
(50세이상)	6차		1.0%		0.6%

### III. 결론

본 연구는 준고령자의 저조한 교육 참여율을 두 단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저조한 참여율이 낮은 참여 희망률에 기인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문제의식에서 연령별로 교육참여 희망률을 파악하였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교육 희망자와 비희망자를 구분하여 연령별로 교육 참여율을 살펴보았다. 직업교육 참여율이 점차적으로 높아지는 추세인 것에 반해 직업교육 희망률은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1차년도에 비해 7차년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교육 희망률 또한 50대 이상 준고령자의 경우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세 이상의 직업교육 희망률은 직업교육 참여율만큼이나 낮았다. 한편, 직업교육 희망 여부에 따른 직업교육 참여율은 우선 직업훈련 희망자의 참여율이 비희망자에 비해 크게 높았고 크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다. 특히, 50대 이상의 준고령자 중 직업교육 희망자의 참여율이 같은 연령대 평균 참여율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령층의 직업교육 문제에 대한 접근이 왜 직업교육에 참여하지 않는가 보다는 왜 직업교육을 희망하지 않는가에 대한 시각으로 접근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 참고문헌

- 기영화(2005), 「고등교육기관에서의 노인들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요인 정립에 관한 연구」, 『Andragogy Today』, 8권 3호, pp. 89-109.
- 모선화·강지현(2002), 「55세 이상 은퇴자들의 노후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박석돈(1998), 「노인의 욕구 변화와 노인교육」, 『노인학연구』, 2권, pp. 1-29.
- 박성희(2004), 「고령화 사회와 노년교육」, 『Andragogy Today』, 7권 3호, pp. 231-248.
- 박영애(2002), 「대학중심의 노인교육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신용주(2000), 「노인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영국의 제 3 연령 교육 정책을 중심으로」, 『평생교육학연구』, 6권 2호, pp. 1-22.
- 이경희(2004), 「노인학습자들의 교육 참여 실태조사 분석」, 『평생교육학연구』, 10권 2호, pp. 49-77.
- 이옥분·장미옥·권인탁·박응희(2001), 「고등교육기관을 활용한 노인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 이화정(2000), 「문화적 전환을 위한 노인교육의 새로운 과제」, 『평생교육학연구』, 6권 1호, pp.163-183.
- 정영진(2001), 「우리나라 노인교육의 참여율 향상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통계청(2000), 『사회통계조사보고서』.
- \_\_\_\_\_ (2004), 「2004 사회통계조사 결과(주거와 교통, 문화와 여가, 교육)」 (2004. 11. 23. 보도자료).
- \_\_\_\_\_ (2005), 『2005 고령자통계』.
- 한국교육개발원(1999), 『평생교육요구분석』.
- \_\_\_\_\_ (2005),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 실태조사』.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1차~7차 조사자료.
- 한규량(1998), 「평생학습 과정으로서의 한국과 일본의 노인교육 프로그램」, 『평생교육학연구』, 4권 2호, pp. 205-235.
- 한정란(2000),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노화에 관한 지식과 태도에 관한 연구」, 『연세교육연구』, 13권 1호, pp. 191-206.
- \_\_\_\_\_ (2001), 『교육노년학: 노인을 위한, 노인에 관한, 노인에 의한 교육』, 학지사.
- 한준상(2002), 「신고령사회 노인교육의 패러다임」, 『Andragogy Today』, 5권 1호, pp. 1-14.
- 허정무(2000), 「권리로서의 노인교육」, 『Andragogy Today』, 3권 4호, pp. 105-128.
- 홍기형·나향진(2002), 「노인의 학습 요구분석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17권 1호, pp. 51-83.
- Houle, C. O. (1984), *Patterns of Learning; New Perspectives on Life-Span Education*:

*San Francisco Jossey-Bass.*

- Hughes, J. A. and S. W. Graham (1990), "Adult Life Roles: A New Approach to Adult Development." *Journal of Continuing Higher Education*, vol. 38, pp. 2-8.
- Kopka, T. L. C. and S. S. Peng (1993), Adult Education: Main Reasons for Participating, NCES pp. 93-451. Washington, D. C.: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al Statistics*, Office of Educational Research and Improvement, U.S. Department of Education.
- Sharan B. M. and R. S. Caffarella (1998), *Learning in Adulthood: A Comprehensive Guide*, 2nd Ed., Jossey Bass Higher and Adult Education Series.
- Schuller, T. and A. M. Bostyn (1996), "Learners of the future: preparing a policy for the third age" in P. Raggat, R. Edwards and N. Small (eds.), *The learning society: challenges and trends*, London: The open University.
- Valentine, T. (1997),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Current Predominance of Learning for the Job", In P. Belanger and S. Valdivielso (eds.), *The Emergence of Learning Societies: Who Participates in Adult Learning?*, New York: Elsevier.